

“미수습자 9명 돌아오길 바라며 절하옵니다…”

사회노동위, 세월호 인양 촉구 72시간 릴레이 기도 현장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 10여명은 7월 8일 오후 7시부터 세월호 선수들기 4차 시도가 예정된 11일 오후 7시까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72시간 릴레이 3만 배 기도를 실시했다.

7월 둘째 주말 광화문 광장은 분수대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부모님들로 활기찼다. 그러나 그 한편에선 815일째(7월 8일 기준) 바다 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누군가의 딸과, 누군가의 아들과, 또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달란 절규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고창석,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저 먼 팽목항에 들릴까 그 이름들을 목 놓아 불러보지만 메아리조차 없는 그 외침에 관세음보살님만 애타게 찾을 뿐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7월 8일 오후 7시부터 세월호 선수들기 4차 시도가 예정된 11일 오후 7시까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72시간 릴레이 3만 배 기도를 실시했다. 그동안 도철 · 법상 · 고금 스님 등 10여명의 사회노동위원 스님들이 번갈아 자리를 지켰고, 350여명 시민들이 다녀갔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도 스님들은 가사적삼이 땀으로 흥건히 젖도록 자리서 일어날 줄 몰랐다.

법상 스님은 “세월호가 왜 이리 무거운지 모르겠다”며 “우리들의 미비한 힘으로 미수습자 가족들의 아픔을 전부 달래줄 순 없지만, 세월호 인양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한 데 모여 9명의 미수습자가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기도회에 동참한 스님들 대부분은 지난 4월 14일 세월호 2주기 추모법회를 위해 팽목항에 직접 다녀왔다. 새벽 바다의 차가운 바람에도 아랑곳없이 미수습자 9명이 돌아오길 기도했건만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배가 됐다. 기도 원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자책하기도 했다.

고금 스님은 “아직도 마음은 팽목항서 미수습자 9명을 기다리고 있다”며 “바뀌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관심 갖는 시민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한다. 끝까지 함께하는 한 세월호는 반드시 인양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지 24시간 째. 더위와 잠을 이겨내느라 지친 스님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4.16연대가 주최한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원 덕분이었다. 스님들은 대학생들의 연극 · 노래 공연을 관람하며 잠시 땀을 식혔지만, 이내 목탁과 북채를 다시 움켜쥐고 시민들에게 기도 동참을 호소했다.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은 “일각에서 인양 포기와 불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정부는 포기할 것”이라며 “미수습자들의 뼈 한 조각,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각 직장에서, 각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해주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인양 예정일에 맞춰 팽목항에 내려가 있는 미수습자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의 말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이금희 씨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세월호 인양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스님들과 시민들의 정성으로 다음 소조기에는 인양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님 10명 · 시민 350명 참여
비불자 · 이웃종교인도 함께해
폭염주의보 발령 가운데도
3박 4일 3만 배 기도 회향
“신도 참여 저조해 아쉬워”

이날 모인 사람들은 스님들이 함께하니 든든하기 그지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웃종교인, 비불자, 어린아이, 대학생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스님들의 집전에 따라 18배를 하며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기도했다.

이원준(21 · 인천대) 씨는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에서 ‘절’은 번뇌를 씻어낸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며 “18배를 함께하며 세월호 인양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 세월호 문제에 대해 불교가 함께 나서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박성호(26 · 성공회대) 씨는 “스님들의 72시간 릴레이기도는 일반인들의 시위 및 집회와는 또 다른 울림이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서 매우 든든하다”며 “이런 계기가 많이 마련돼 세월호 인양이 온전하고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는 72시간 동안 3차례 108배에 동참하며 의미를 더했다. 문규현 신부는 “세월호 특조위를 정상화하고,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기 위해선 종교 구분 없이 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이웃종교 활동에 연대할 것”이라 말했다.

기도 48시간 경과, 11일 예정됐던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이 기상악화로 인해 또다시 지연됐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됐다. 남부지역 기상이 좋지 않단 예보에 마음 졸이던 스님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맥이 빠졌지만 스님들의 목탁 소리와 정근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도철 스님은 “인양이 실패한다면 우리들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72시간 기도가 끝이 아니다. 9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비불자로서 72시간동안 기도에 동참한 신영철(55) 씨는 “3박 4일간 기도가 세월호 인양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더 큰 힘이 모여 세월호가 반드시 인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노동위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늘도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것일까. 72시간 릴레이 기도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거짓말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점차 굵어질수록 스님들의 땀방울도 송골송골 맺혔다.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좌절하지 않겠단 그 의지를 보여주는 듯 스님들은 마지막까지 사활을 다해 기도했다.

조계종 사회국장 지상 스님은 “이번 기도회에 많은 신도들이 함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불자들이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사회와 함께하는 ‘희망의 길벗’이 되길 바란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7월 8일 오후 7시 입재식을 거행하고 있다.



사회노동위원 스님들과 시민들이 세월호 분향소를 향해 기도 정진 중이다.


7월 9일 열린 4.16연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스님들 집전에 맞춰 18배를 올렸다.


72시간 동안 350여명 시민들이 릴레이 기도회를 다녀갔다.

